

<내 멋대로 해라>: 행복한 페인들의 미디어 순례기와 문화적 수행

김영찬 (한국언론재단)·이기형 (연대 영상대학원)

I. 들어가기

한국문화연구의 영역에서 하위문화(subculture)와 팬연구(fan studies)가 조직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거칠게 기술해서, 흔히 ‘고급스런 이론, 낮은 문화(High Theory, Low Culture)’라는 문구로 요약되는 문화연구의 운영방식은 특정 국면과 맥락에 대한 (메타)이론적 혹은 담론적인 개입(discursive intervention), 그리고 대중문화를 두고 이루어지는 실천과 일상 전반에 걸친 분석과 개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론적인 층위의 개입 혹은 진보적 문화정치의 기획(project)으로서의 문화연구는 층위를 달리하는 다양한 문제들 - 예를 들면 특정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인 국면에 작용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작동, 소비자본주의의 작동방식, 문화의 세계화, 문화와 경제제도나 정치와 같은 다른 층위들과의 접합, 주체의 생산과 구성 등과 같은 주제들-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왔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문화연구는 맑시즘 혹은 문화유물론에서 기호학, 탈구조주의와 탈근대주의, 계보학(genealogy) 그리고 욕망이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이론적인 틀들을 선택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전유해서,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분석과 변화를 자리매김하는 ‘인식의 지도 그리기’를 시도해왔다. 여기서 시도해왔다는 (attempted to) 표현은 그러한 문화연구의 작업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이론적인 저항의 문화연구와 비교할 때,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연구(popular cultural studies)와 하위문화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 출현하기 시작한 ‘감수성의 혁명’과 다양한 주제들에 의한 문화의 수용과 의미론적/기호학적인 문화생산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성장해왔다. 신세대의 감정구조와 ‘감각의 혁명,’ 세대적인 차이와 구별 짓기에 바탕을 둔 ‘차이와 즐거움, 그리고 욕망의 정치학’을 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하위문화연구는, 대중문화연구 그리고 팬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활동영역을 조금씩 넓혀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위문화연구는 주류문화의 언저리에 존재하는 소외된 사회적인 주체들 - 청소년, 빼끼, 십대, 폭

주족, 성적인 소수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참여관찰하거나, 다큐멘터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두껍게 기술’한다. 동시에 하위문화적인 주체들과의 성찰적인 인터뷰(reflexive interview)와 그들의 삶과 놀이의 현장을 방문해서 관찰기를 수집하는 형태로 특정 사회적 주체들이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그들만의 삶의 경험과 문화적인 특성들을 연구해왔다(이동연 2002). 하위문화연구와 연계되어 출현하기 시작한 팬연구는 스타와 팬의 관계에 관한 맥락적인 분석, 십대 아이들(idol) 그룹 팬들에 관한 문화정치적인 분석과 문화구성체로서의 팬 그룹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수준의 활동들에 관한 담론분석, 수용자분석, 그리고 현장관찰을 시도해왔다.

방법론의 차원에서 팬덤과 하위문화의 형성에 관한 문화연구 작업들은 질적인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 특히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 - ‘민속학’적 방법론 혹은 ‘사람연구’)를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질적인 방법론의 활용은 한국에서의 문화연구의 전범이 된 영국문화연구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다. 버밍엄대학의 현대문화연구소(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의 작업으로 상징되는 영국의 하위문화연구는 에스노그래피와 질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해서, 전후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중산층화를 급격히 겪던 영국사회의 지형에서 세대간의 갈등과 청년세대가 만들어내는 의미생산과 스타일에 바탕을 둔 문화정치학에 천착해왔다. 폴 윌리스, 딕 헵디지, 스튜어트 홀과 토니 제퍼슨의 작업으로 대표되는 영국문화연구는 다양한 하위문화의 주체들이 기존 사회구조 내에서 경험하는 모순과 갈등들을 상징적인 층위에서 ‘저항’하거나 해결하려 하는 과정들에 대한 기념비적인 연구의 틀을 제공했다(박명진 외 1996). 이들은 이론중심의 문화연구가 구조주의의 영향아래서 인간주체를 지배담론이나 제도가 형성하는 구조물이나 효과 혹은 결과물 정도로 폄하하거나 저평가된 것을 비판하고, 문화실천의 행위자이자 의미생산자로서의 주체가 지닌 상대적으로 ‘능동적인’ 능력에 주목했다. 따라서 하위문화연구와 팬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 주체들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특정 문화양식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들이 일상에서 실행하는 ‘상징적 창조성’(symbolic creativity)과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한다. 동시에 영국문화연구는 윌리엄스와 톰슨의 문화유물론적인 시각을 이어받아서 계급적인 틀 안에서 노동자 계급의 청년세대들이 주어진 사회구조와 불평등에 대응하거나 저항하면서 표현하는 체화된 삶의 구체적인 경험(lived experience)과 상징적인 의미들을 포착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영국문화연구의 자장과 영향 속에서 출현한 한국의 대중문화연구와 하위문화연구는 그 분석의 주요대상이 계급적으로 구분된 특정 하위문화 집단에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적인 특질 - 탈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정서의 구조- 을 연구해왔다. 특히 팬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팬을 자본주의적인 문화산업이 조장한 일종의 수동적인 문화의 수혜자(cultural dupes)로 규정하거나, 그들의 스타 추종을 병리학적인 행동으로 보던 이탈(deviance)의 시각으로부터 탈피해서, 팬들의 활동을 생산적으로 보는 문화론적인 입장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팬에 대한 인식이 십대의 '무분별한 스타추종'이나 -흔히 자의식이 없고 충동적인 '빠순이', 혹은 '오빠부대' 현상으로 치부되는- 마케팅이나 광고 혹은 문화기획과 같은 소비 자본주의의 제도에 좌지우지되는 주체로 상정되었음에 비해, 최근에 와서는 팬은 나름의 의미와 문화를 생산해내고 표현하는 상당할 정도의 문화적인 결집력과 (반)자율적인 문화행위를 구현하는 대상이자, 세대를 가로질러 형성되는 '문화세력'으로 재인식되게 되었다. 동시에 팬들의 활동을 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구조를 텍스트 분석이나 기호학적인 분석으로만 접근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문화수용과 대중문화 생산의 공간에서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형성하는 다양한 문화적인 실천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나 정동의 경제(emotional and affective economy)와 팬들이 집적하는 문화적 자본과 지식(fan knowledge)을 맥락화하는 방향으로 방법론적인 전환 역시 이루어졌다. 여기서 정동은 에너지의 흐름과 배치 그리고 투하를 말한다.

우리는 이런 문화연구의 지형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팬연구와 하위문화연구의 방법론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네 멋대로 해라>라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팬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와 문화적인 실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팬들이 수행하는 문화생산과 그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표현해내는 의식(ritual)을 질적인 방법론을 -참여관찰과 성찰적인 인터뷰 그리고 자기기술기(auto-ethnography)-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네 멋대로 해라> 팬들의 활동과 그들이 일상에서 표현해내는 상징적인 행위와 의식(ritual) 그리고 문화적인 수행(performance)들을 집근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존의 학자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일정부분 탈피해서, 객관성을 담보받기 위해 관찰대상과의 거리를 넘어서지 않는 관찰자라기 보다는 팬(scholar-fan) 그리고 대화자(interlocuter)의 입장에서 <네 멋대로 해라>의 팬들을

접근했다. 이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완결되었다기보다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이 발제문은 일종의 '중간 보고서'이다.

II. '퀵리터 그리고 소수자 드라마'로서의 <네 멋>

'감동, 진지, 순박, 경악, 코믹, 멜로, 액션... 말을 아끼고 싶지 않은 드라마다'

'내 생애 최고의 드라마...할말이 없다...'

'<네 멋>, 날 자유롭게 하는 힘...' <네 멋30> 카페에서

<네 멋대로 해라>(이하 <네 멋>)는 MBC가 2002년 7월 3일에서 9월 5일까지 방영한 매 회 70분 짜리 2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니 시리즈이다. <네 멋>의 주제와 상황설정은 상당히 진부할 수 있다. 이 드라마의 시놉시스를 보면,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전직 소매치기이자 스티트맨으로 일하는 한 청년(고복수)이 부자집 딸이지만 인디 밴드의 키보드 연주자로 살아가는 여성(전경)을 우연히 만나 만들어 가는 '사랑 이야기'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연모하고 챙겨주는 치어리더(송미래), 어렸을 때 자신을 고아원에 맡기고 도망치듯 잠적했지만 지금은 함께 사는 아버지, 그리고 이복동생을 데리고 따로 사는 어머니가 있다.

주류사회에서 이탈되어 살아가거나 주변부에 있는 소매치기, 삼각관계, '결혼 가정', 난치병, 주인공들간의 삼각관계 등으로 요약되는 이러한 지극히 신파적인 설정에도 불구하고, <네 멋>은 텔레비전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오래도록 군림해 온 멜로드라마가 유지해온 '전형성'을 상당부분 탈피하고 있다.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 세 주인공, 복수, 경, 미래, 사이에 사랑의 대상을 두고 뺏고 뺏으려는 혹은 상대방을 모략하거나 파괴하려는 '멜로드라마적인 욕망'이나 갈등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 주인공은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수를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와 복수는 같이 살고 있으며, 무엇보다 반말투로 상징되는 그들 간의 관계는 수직적이거나 권위주의로 매개된 부자기간 이라기보다는 친구나 끈끈한 동료애로 결합된 사이로 그려진다. 동시에 세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보조 캐릭터들의 관계 맺기 역시 서로 간의 편가르기나 증오하는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되거나 중심 캐릭터를 보조하는 일종의 위성 캐릭터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나름의 자율성과 개성을 구현한다. 이들 역시 상하관계에 매몰되기 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각자의 개성을 배려하

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네 멋>이 이러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규범에 잘 들어맞지 않는 흔치 않은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 맺기를 구현하고, 드라마의 현실성(verisimilitude)을 상당 부분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드라마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상치 않은 대화와 인물설정에 기인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말을 빌리면 <네 멋>의 캐릭터들은 ‘딱 살지만 나름의 개성을 구현’하고, <네 멋>은 ‘사람 냄새’가 나는 ‘떨거지들’의 드라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군의 비평가와 시청자들이 <네 멋>을 탈권위주의적이고 다양성을 담지하는 일종의 ‘수평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소수자 드라마’라고 정의하는 것은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앞서 잠시 언급한대로 <네 멋>은 지금도 꾸준히 안방을 누비는 전통적 멜로드라마나 1990년대 초 이후 기존 멜로드라마에 도전장을 내고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1990년대의 ‘트렌디 드라마’와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1992년 MBC가 방영한 <질투>로 대표되는 트렌디 드라마는 TV 수용자 중 특히 신세대의 문화적 취향 변화에 조응하여, 당시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한 소비문화와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을 새로운 스타일의 영상이미지와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Lee 2001). <네 멋>은 트렌디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하고 젊은 세대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지만, 트렌디 드라마와 달리 시청률 경쟁의 산물도 아니고 시청률에 연연하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트렌디 드라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창의성’을 갖춘, ‘퀄리티 프로그램’(quality programming)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드라마이다. <네 멋>은 상투적일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감정의 과잉(emotional excess)이나 선악으로 갈린 이중적인 등장인물을 갖지 않은 ‘회귀한’ 드라마이다. 멜로드라마의 정체성을 구현해 주는 ‘눈물의 미학’은 있으나 과장되거나 질질 끌지않는 이 드라마는 오히려 정서의 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담담하거나, 수용자들의 성찰적인 동일시를 이끄는 조용된 액션의 ‘조용한’ 드라마이다.

<네 멋>은 트렌디 드라마가 그 동안 흔히 보여왔던 빠른 템포의 스토리텔링, 경쾌한 음악, 화려하고 매력적인 로케이션과 미장센을 통해 정서적 고양이나 낭만적 사랑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네 멋>은 시청률을 의식한 스타 시스템을 동원하는 대신, 일상적인 삶에 근거한 디테일들로 시청자를 호명한다. <네 멋>에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어도 그 자체가 중요한 서사의 질료로 치부되지 않고, 복수 혹은 신분상승의 욕구에 불타는 파괴적이거나 일면적인 캐릭

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드라마를 끌어가는 서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가 부재하거나 강조되지 않는 것이다. 트렌디 드라마와는 달리 <네 멋>에는 전지구적 소비문화의 최전선에서 포착되는 트렌드들을 이식해 놓은 것 같은 세련되고 화려한 인테리어나 물상들로 넘쳐나는 미장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네 멋>에서 그려지고 있는 일상의 공간들은 트렌디 드라마가 서사의 빈곤함을 메우기 위해 종종 동원하는 볼거리나 특정 공간들 -도시적인 소비공간, 상류층들의 사교 그리고 부르주아적 욕망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주거공간 등-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네 멋>의 두 주인공은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의 혼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길가나 계단 혹은 지하철역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의 주거공간은 우리가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집과 환경을 닮았다.

연애드라마로서 <네 멋>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극중에 사랑한다는 대사는 한번도 나오지 않는 묘한 드라마이다. 남자 주인공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드라마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비극성을 고양하거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지향하기 보다는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았으나 대면하고 맞아야 할 순간으로 그려진다. <네 멋>의 마지막 회는 해피엔딩도 전개되어온 갈등의 해결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수술을 받는 주인공에게 세 번씩 ‘수술 잘 받아요’라고 말하는 여주인공 경의 걱정어린 모습과 수술실에서 붕대를 머리에 감고 누운 채 실려 나오는 복수의 모습을 보고 미소짓는 경의 클로즈업된 얼굴로 마무리된다. 복수라는 캐릭터가 뇌수술을 받고 생존할 수 있을지 혹은 이미 죽었는지에 관해 드라마의 결말은 여전히 ‘열려있는 구조’로 남는다.

III. 폐인들, 문화생산에 가담하다: 팬덤과 놀이, 공동체성,

그리고 폐인들의 순례기

1991년 SBS의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시청률 경쟁, 그리고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프로그램의 상품화 경향이라는 전체적 미디어 정경을 고려할 때, 한국의 텔레비전 시청자가 이런 류의 ‘퀄리티 드라마’(quality drama)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 아니

라 일종의 문화적인 '사건'에 준할 수 있다. 여기서 퀄리티 드라마란 일정 정도의 작품성과 미학적성, 그리고 '작가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드라마를 말한다. 20%를 웃돌지 못하는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영된 뒤 한해가 지난 지금에도 인터넷 팬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네 멋>을 기억하고, 나름의 문화적인 실천을 수행하고, 자신들의 삶과 연계시키는 충성스런 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드라마의 수용과 일상적인 활용에 대한 진지한, 그리고 학문적인 거리를 넘어서서 참여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네 멋>의 문화적 함의는, 전체 시청자 중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충성스런'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이 드라마가, 방영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팬들의 왕성한 활동과 의미생산, 정서적 투하, 그리고 기억 만들기의 과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흔치 않은 대중문화 산물이라는 데 있다. '우리'는 종영된 뒤에도 식지않고 지속되고 있는 <네 멋> 현상을 맥락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인 전제와 틀을 갖고 연구에 착수했다:

1) 기존의 미디어 중심의 문화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론인 텍스트분석이나 담론분석은 최대한 줄이고, <네 멋>이라는 주텍스트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는 2차, 3차 그리고 복수화된 텍스트들을 주목한다. 동시에 텍스트의 효과와 미장센, 코드, 편집, 캐릭터의 운영등으로 드러나는 서사/의미구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네 멋>이라는 텍스트를 활용하는 수용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과도한 학문적인 개념이나 이론적인 틀에 의지하기 보다는, 수용자들의 다양한 언술적인, 그리고 텍스트와 수용자 사이의 상호 교섭적인 (interactive) 문화적인 실천에 - 즉 팬덤의 생산성과 능동성에 - 주목했다 (박은경 2003).

2) 이러한 작은 규모의 수용자연구와 팬연구를 시도함에 있어서, 수용자 혹은 <네 멋> 팬들의 활동이 가장 가시적이고 활발한 인터넷 카페인 <네 멋 30>을 찾아 그 구성원들 일부에 대해 참여관찰과 성찰적인 인터뷰(self-reflexive interview)를 시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네 멋> 팬들이 일상에서 반복해서 행하는 문화적인 수행(performance)과 의식(ritual)이다. 우리는 <네 멋>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왜 이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네 멋>에 관한 몰입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했다.

3) 2인 1조로 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두 연구자 사이의 <네 멋>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을 인위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통합하거나 그 차이를 줄이지 않으려 했다: 한명은 <네 멋>이라는 흥미로운 대중문화텍스트에 대해 학자로 접근했고, 한명은 학자보다는 팬의 입장에서 접근했다. 물론 연구과정 속에서 이러한 주체는 각기 독립적이기 보다는 일종의 혼성적인 주체(hybrid subjectivity)로 작용했다. 동시에 연구대상에 접근함에 있어서 관찰자 혹은 연구자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연구작업 전반에 걸친 자기성찰성(self-reflexivity)과 내부자가 아닌 관찰자이자 대화자라는 편향성(partialness)을 유지하려 했다.

4) 이 연구는 저널리스트틱한 일회적인 인터뷰와 참여관찰에 의존하지 않았다. 대신 연구대상과의 연대(rapport)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그들의 시각과 목소리, 즉 일종의 내부자적인 시각과 의견(native's view)을 연구과정 속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네 멋 30>의 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2차, 3차의 인터뷰와 참여관찰이 계획되고 있으며, 이미 만나서 인터뷰를 가진 사람들 일부로부터 <네 멋 30>의 활동이나 자신들의 <네 멋>을 둘러싼 기억 만들기에 대한 자기보고문 혹은 감상문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다.

<네 멋> 페인들의 문화와 문화적인 실천연구를 위한 경험적 데이터는 인터뷰와 참여관찰로 모아졌다. 개인적인 섭외와 뒤풀이에서 만나서 접촉이 이루어진 일곱 명과 개인 인터뷰를 가졌고, <네 멋 30> 사이트에서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페인들과 3시간에 걸쳐 한차례 그룹 인터뷰를 가졌다. 평균적으로 인터뷰는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서를 준비했지만, 그 질문서에 의거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보다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형식을 취해서 인터뷰 대상들의 통상적인 텔레비전 시청습관에서 좋아하는 드라마에 관한 단상과 기억, 그리고 <네 멋>과 관련된 일상에서의 그들의 기억 만들기의 과정을 끌어내고자 했다. 개인 인터뷰의 경우는 노트 필기로, 집단 인터뷰는 녹음기를 휴대해서 전 과정을 녹취했다. 우리는 선유도공원에서 7번에 걸쳐 이루어진 <네 멋> 무료 상영회장에 3번 참석했고, 뒤풀이에도 참가해서 장소를 바꿔가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 멋 30>의 구성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네 멋> 페인들이 자주 찾아오는 버스정류장에 들어서 짧은 형태의 구조화되지 않은 인터뷰와 대화를 가졌고, 드라마에 대한 그들의 인상기를 들었다.

(1) <네 멋 30> 카페: 공감과 투사를 통한 팬 되기

우리가 주목한 <네 멋>팬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네 멋 30>이다. <네 멋 30>은 2002년7월 24일에 개설되었고, 회원수가 17,000명을 넘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카페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네 멋 30>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대부분 최초로 가입했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제시하는 가입의 주된 이유는 <네 멋>이라는 드라마가 주는 '신선함' 그리고 타 드라마와의 '차별성'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iMBC가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멋 30>의 존재를 알았고, 처음에 30대 위주로 운영되던 사이트에 10대, 20대 그리고 40대 까지도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네 멋>을 '세상 사는 방식을 꼬집었고 쿨하게 푼', '드러워도 쿨하게 사는' 사람들의 드라마라고 정의했다. 대부분의 인터뷰의 응답자들은 최초 방영 시에 스타가 출연하지 않는 <네 멋>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가, 방영회수가 늘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네 멋>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I는 처음에 트렌디 드라마면서 스타파워를 지닌 같은 시간대의 <순수의 시대>를 시청하다가, 그 진부함과 가벼움 때문에 <네 멋>으로 시청습관을 바꾸었다고 대답했다. S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는 소수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필했기에 <네 멋>의 팬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네 멋>이 형상화한 보기 드문 캐릭터상 역시 이러한 몰입의 큰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D는 <네 멋>의 여주인공인 경의 예를 들어 '깨져도 덤비고 지가 옳은 건 밀고 나가는 똑심있는', '안하는건 포기지만 하는건 시도'라고 말하는 캐릭터의 '남들 신경 안 쓰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모습' 때문에 이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앵글에서 보면 <네 멋 30> 카페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속적으로 소통과 나눔 그리고 연대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들은 '가늘고 모질게 살자,' '문썬열어주세요,' '꽃어른,' '정상인,' '늬중양벌레' 등의 '늬'(늬네임의 준말, 아이디)을 사용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네 멋>에 관한 의미와 감상을 교환하고, 교류한다. 여기서 늬이 주는 익명성은 회원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K는 "머리 커서 만난 사람들은 벽이 생기고 패가 타잖아요. 만나는 관계에서 이해타산 따지구요...온라인에서 만나면 익명성이란 게 있어서... 처음 만날 때

모르기 때문에 편해요... 조금씩 친분이 쌓이고, 소통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확 알게 되어 오는 부담은 없어요"라고 말한다. D는 사회적인 위치나 나이 혹은 직업이 드러나지 않고 드라마에 대한 애정으로 멤버십을 획득한 회원들이 늬네임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설레임"이 있어 만나고 "뭔가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있어서 만난다. 주변엔 <네 멋>을 아는 사람이 없고 드라마에 빠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여기 오면 다 받아줄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와서 얘기해보니까 얘기가 되서"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아서 만난다. 이런 의미에서 <네 멋 30>은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community of imagination)를 형성한다. 회원간의 교류의 일반적인 형태는 감상평 올리기, 이미지나 사진 올리기, 그리고 매체에 보도된 <네 멋>에 관한 뉴스를 퍼와서 올리거나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올라온 글에 댓글 달기를 통해 일종의 '친밀화' 과정을 거친다. 동시에 많은 수의 <네 멋 30> 회원들이 <네 멋>에서 따온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자신들이 편집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거나, <네 멋>에 등장한 세팅을 직접 찾아가서 디지털 카메라 찍은 그때 그때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네 멋>의 서사에 자신의 상상력을 부여한 팬픽(fanfic)을 써서 사이트에 올린다. 이들이 공유하고 유지하는 <네 멋 30>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정체성은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와 의미 그리고 기억 만들기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네 멋 30>의 회원들이 여타 팬덤을 끌어가는 그룹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점은 이들이 <네 멋>을 통해 스타덤을 획득한 양동근 그리고 이나영의 팬 사이트는 물론 <네 멋 상봉>, <처음 느낌 그대로>와 같은 여타 <네 멋> 팬 사이트와 자신들을 분명히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네 멋 30>의 회원들은 두 스타를 낭만시하거나 동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스타 카페의 회원들처럼 양동근이나 이나영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스타들의 동정을 다룬 글을 누군가가 웹사이트에 올리면, <네 멋 30>의 관리자는 즉각적으로 여기는 양동근과 이나영의 팬사이트가 아니니 글을 삭제한다고 통보한다. 스타를 추종하거나 스타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보다는 그들은 드라마 자체와 스타가 아닌 드라마상의 캐릭터들에 대한 감정이입과 애착을 통해 서로간의 관계맺기와 소통을 유지한다.

(2) 팬인들의 문화적 실천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네 멋30>의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연출’하고 있는 ‘미디어 순례기’(media pilgrimage)와 드라마를 질료로 삼아 벌이는 ‘놀이’와 문화적 생산이다. 이들은 드라마 속에서 복수와 경이 주로 만남을 갖는 지하철 광흥창역 근처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찾아간다. B의 표현대로 이들은 ‘처음에 정류장에서 누굴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여기서 주로 벌어지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기억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버스 정류장의 투명한 벽과 천장은 일종의 <네 멋> 게시판으로 바뀐다. 찾아온 회원들은 거기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경과 복수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쓰거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글이나 연인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붙인다.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복사해와서 붙이는 것은 물론 심지어 <네 멋> OST나 3호선 버터플라이의CD를 붙여놓고 가기도 한다. 이러한 낙서하기와 편지 붙이기는 이들이 공유하는 기억 만들기와 기념하기의 주요한 수단이자 소통하는 과정이 된다. 동시에 버스 정류장에 찾아오는 회원들은 드라마에 나왔던 대로 썸 커피를 가져와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두고 간다. 회원들은 ‘번개’ 형태의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거나, 회동하고,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이어간다. 미디어 순례기는 버스정류장 뿐만 아니라 드라마 상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주거공간 혹은 그들이 일하던 공간들 -미래네 계단, 복수네 집, 경의 연습실, 선유도공원, 포항의 해맞이공원 등-도 찾아간다. <네 멋30>의 활동가들이 1주년을 기념해서 내놓은 책에는 자세한 지도가 실려있고, 웹사이트에는 <네 멋> 팬들이 올리는 순례기들이 매일 업그레이드 된다.

대사놀이는 <네 멋> 팬인들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기억과 의미 만들기의 핵심 기제 역할을 한다. <네 멋>의 대사는 ‘웬만한 시보다 더 시적’이라고 표현한 O는 그가 일할 때 <네 멋>의 대사를 녹음해 놓았다가 듣고는 했다고 응답했다. 대사를 외우거나 대사의 일부를 자신의 일기장이나 컴퓨터에 만들어놓은 노트장에 쓰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대사를 재향유하고, <네 멋>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키워나간다.

<네 멋>이 팬들에게 주는 의미들을 그룹 인터뷰와 개인 인터뷰 참가자 프로파일(profile)과 함께 묶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 <네 멋 30> 카페의 주인장(시삽)으로서 ‘지난 1년간 회원들이 한 모든 활동에 관여’했음. ‘가식 없음, 같은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감, 꾸밈없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네 멋>에 빠져들게 됨. <네 멋>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금세 동화되었고 <네 멋 30>이 ‘자신의 삶의 일부’이라 생각함. 자신의 ‘가정환경과 극중 가족관계가 비슷’한 점이 있음. (이외수 팬카페 동호인. 경기도 화성 거주. 인테리어 기술직. 대졸. 미혼. 남. 30세).

B: ‘아무 생각 없이 <네 멋>을 보다가 경이 담배 피는 장면에서 신선함을 느낌’. 경이는 ‘너무나 현실적인 캐릭터’이며 복수 부모의 아픔을 잡아낸 ‘작가의 역량이 대단하다’ 생각함. 한마디로 ‘<네 멋>과 코드가 맞아’ 빠져들게 됨. 드라마에 미치기는 처음. ‘동호회 이름이 <네 멋 30>인데 30대가 별로 없고, 30대를 구박하고 안 아껴줘서’ 서운함. (영화 ‘지구를 지켜라’ 동호인. 서울 거주. 강사. 대졸. 미혼. 여. 30대).

C: <네 멋>이 ‘자기 마음을 울려서’, 그리고 ‘이나영의 캐릭터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네 멋>을 좋아하게 됨. <네 멋>은 ‘새로운 형식, 현실과 판타지의 중간, 기존 드라마와는 다른 캐릭터 전개 방식, 사실성이 담긴 대사들과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 있어 너무 좋음. 모인 사람들과 ‘세상을 좀 더 신나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 활동을 함. (밀리터리 동호회 활동. 서울 거주. 컴퓨터 A/S직. 전문대졸. 미혼. 남. 32세).

D: <네 멋>은 ‘세상 사는 방식을 꼬지 않고 cool하게 풀었음’. ‘내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드라마에 나와’ 좋아하게 됨. ‘주변 사람들이 내게 말해주지 않던 것을 복수가 대신 얘기해주고’ 용기를 줌. 대사를 줄줄이 외움. 1차 정보 촬영을 계기로 동호회 참가. ‘깨져도 텀비고 자기가 옳은 건 믿고, 똑심 있는 복수’를 닮고 싶음. (인라인 동호회 활동. 서울 거주. 도안직. 전문대졸. 미혼. 여. 31세).

E: <네 멋>을 보면서 ‘마음이 좋아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음. 동호인들이 마음을 좋게 해줌. 이들이 자신에게 경이자 복수임. ‘결손가정에서 자라 꿈을 늦게 찾는 복수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연극 관람 및 바둑 동아리 활동. 서울 거주. 백수. 대퇴. 미혼. 남. 28세).

F: 양동근이 나온다 해서 <네 멋>을 보기 시작. '상추쌈 씌에 감동' 받음. '기존의 드라마 완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전개와 대사들이 좋아'서 빠져들게 됨. <네 멋>은 한마디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드라마' '행복한 사람과 따스한 가족애'가 있음. <네 멋>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음. (창작 시나리오 동호회 활동. 인천 거주. 자동차 개발직. 대졸. 미혼.남. 30세).

G: 하루 5시간 이상 TV 시청. '현실을 순간적으로 잊을 수 있어서' 드라마를 봄. '그냥 느낌이 좋아' <네 멋>을 좋아하게 됨.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은 없음. <네 멋>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자신과 극중 꼬봉이 닮았다'고 생각함. (서울 거주. 백수. 사회교육원 수료. 미혼. 남. 31세).

H: '개인적 취향과 맞아서, 양동근과 이나영의 연기가 좋아서, 소재가 참신해서, 한마디로 cool해서, 대사가 폐부를 찔러서' <네 멋>을 좋아하게 됨.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카페에 가입. <네 멋>에 '마약처럼 중독'되어감. '모든 속박을 벗어나 거침없이 사는' 극중 캐릭터와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함. (야구/마케팅 스터디/영화 동호회 활동. 서울 거주. 회사원. 대졸. 미혼. 남. 37세).

I: 평소에 TV를 잘 보지 않음. '막 사는 듯 보이는 그들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네 멋>을 좋아하게 됨. 동호회 활동은 '있는 족족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 '미래의 호탕함을 닮은 사람과 경이의 황당함을 닮은 사람이 주위에' 있음. (은회경 씨커스 매직 유량 단 동호회 활동. 서울 거주. 비서. 고졸. 미혼. 여. 24세).

J: 평소에 양동근, 이나영, 신구를 좋아해 보게 됨. <네 멋>은 '뒤통수를 너무 많이 치는 드라마'. '다른 드라마완 달리 전혀 예상이 안됨'. '대사 하나하나가 응용하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말이고 예쁨'. 10대 번개모임을 나갔는데 '마음이 좋았고 사람들이 좋았음'. <네 멋>은 '인생의 교과서'. (포트리스 길드 및 대학교 춤 소모임 활동. 경기도 고양시 거주. 대학생. 앞으로 컴퓨터 관련 웹마스터나 프로그래머 지망. 미혼. 남. 20세).

K: '시점이 딱 맞아떨어져' <네 멋>을 좋아하게 됨. '졸업 후 다니던 회사의 인원감축으로 실직 상태였고, 월드컵으로 달뜬 상태가 한달간 계속'됨. 이후 '공허함에 시달리다가 새로운 꺼리를 찾게 되었고 우연히 첫 회를 보고 반해' 버림. '무수한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다 결정적으로 팬인이 됨. (터끼산장 -75년생 토끼띠 모임- 및 행사모 -행복한 4학년, 졸업 동기들 모임- 활동. 서울 거주. 고시생. 대졸. 미혼. 남. 29세).

L: '무료함과 건조함을 달래기 위해' 드라마를 봄. '지치고 힘들 때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으면 무료함, 건조함 등이 잠시나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 양동근 팬이어서 <네 멋>을 보기 시작했음. 인물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인상 깊었음.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모습들이 가슴에 와 닿았음. '여태껏 트렌디 드라마에선 항상 백마 탄 왕자나 상층 여자와 하류층 남자 또는 여자와의 만남이라는 구도. 그리고 마치 신데렐라처럼 상류층 사람을 통해 하류층 사람이 구원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멋>에서도 상류층과 하류층이 나오긴 하지만 좀 다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너무 좋았음. 고3때<네 멋>을 봤는데 '막 억압 받고 힘들던 차에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경이, 복수, 미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음'. <네 멋>은 한마디로 '자유분방한 드라마'. (최근까지 <네 멋 30> 동호회 활동은 하지 않았음. 서울 거주. 대학생. 미혼. 여. 20세).

M: 이나영, 양동근 모두 좋아했는데 <네 멋>에 둘 다 나온다고 해서 봤다가 드라마가 좋아서 계속 보게 됨. '예전 드라마들은 너무 통속적이고 신파이거나 너무 극단적 상황이 많음'. 즉 '대립 축이 있고 이분법적인데 반해 <네 멋>은 그런 통속성에서 벗어나 신선해서 불 맛이 남'. '드라마가 말하는 가치관'이 자신과 잘 맞아서 '동일시도 가능'함. 사회적 벽을 느꼈을 때 질질 찌지 않고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상큼함. 정신적 동질감을 느꼈고 '드라마에서 배우기도' 함(슬픔 견디는 방법 등). <네 멋>은 '결코 무겁지 않게 짙을 건 짙어가는 따뜻한 드라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므로 동호회는 가입 안 함. 그들은 좋아했던 부분만 계속 좋아함. 동호회는 현실의 인간관계가 드라마에서처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모임'이라 생각함. 커뮤니티 회원들은 대단히 '내성적이고 자폐적인 애들'이 많다고 생각함. '실제 생활에선 변화가 없으면서 드라마 속 소통방식을 동경하는 애들'이 오는데, '드라마에서 느끼는 만족감만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네 멋>은 한마디로 '주체적인 드라마'. 누군가를 위해 흡수되는 삶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 <네 멋>에 대한 방송비평을 써서 상을 받은 바 있음. (언론사 스터디 모임 활동. 서울 거주. 연구보조원. 대학원졸. 여. 30세).

이상 살펴보았듯이 <네 멋 30>의 팬들에게 <네 멋>이라는 텍스트와 동호회 활동은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대하는 자세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롭고 '자유분방'한 시각-'제대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I)-을 제공하는 일종의 '인생의 교과서' 내지 삶의 좌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팬들은 단순히 경이나 복수 혹은 미래를 닮으려고 하거나 동일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멋>은 '나를 착하게 만드는 것 같다'거나 '텍스트 자체보다 그 이후의 것들... <네 멋 30>에서 부대끼다 알게 된 사람들... 모임에서 깨닫는 게 더 큰 것 같다'는 K의 말이나 '동일시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닮아 가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거라 생각'한다는 I의 말에서, 이미 이들에게 <네 멋>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디어이다. 이들은 경이가 한 '안하는 건 포기지만 하는 건 시도'라는 대사를 경구처럼 되뇌며 '어느 순간 약발이 떨어져 또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간' 것에 씩씩해 하고, '나이에 맞추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네 멋>을 보면 그런 건 상관 없는 거야'(D)라며 사회적 통념과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변화 내지 자신들 삶에 대한 성찰적인 인지는 '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하는'(B) 많은 <네 멋 30> 회원들에게 있어서, '중학교 이후 친구가 없었어요. 15-6년간 친구가 없던 놈이 일년 사이에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라고 한 G의 말처럼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 드라마가 팬들에게는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기제(empowering device)의 역할과 경험의 공유를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팬인들의 문화 생산

<네 멋>30의 회원들이 주도적인 노력을 했거나, 생산해낸 문화 텍스트들은 크게 DVD 제작, 무료 상영회, 책 만들기를 들 수 있다.

i) DVD 제작을 둘러싸고

<네 멋> DVD는 <네 멋 30> 회원들이 <네 멋>의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해 만들어 사이트에 올린 수백개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된 <네 멋>이라는 주텍스트를 '복수화' 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난 팬들의 다양한 활동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다. 우선 <네 멋> DVD 편집과 판매와 관련하여 <네 멋 30> 팬인들이 취한 태도를 보

면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bilities) 면에서 여타 연예인 팬 사이트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드라마 연출하는 사람은 우리와 거리 있는 사람"(K)이라 생각했던 이들은 첫 만남을 통해 박성수 PD가 자기들과 어울려 똑같이 놀고,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이정옥 작가 역시 자신들과 똑 같은 "꿀통"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는 소위 "필(feel)을 받아" (B) 본방 당시는 물론 DVD제작 시에도 드라마 내용에 대해 "간섭 안하고 박성수 감독에게 일임"(A)했다고 말했다. DVD 제작사인 비트윈 게시판에 "개 떼처럼" 몰려가 DVD제작을 요구하고, iMBC게시판에 <네 멋>에 대한 엉뚱한 요구 사항이 못 올라와 있게 하는 등, DVD최초 기획단계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은,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면 죽일 캐릭터도 살리는 우리 방송환경에서 결국 드라마가 원래 의도대로 갈 수 있게끔(다시 말해 MBC의 광고문구처럼, 우리나라 드라마 최초로 director's cut이 나올 수 있게끔) 연출자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본방 때도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자, 작가와 PD에게 맡기자, 살리건 죽이건" 하던 이들은 DVD를 만들 때도 "감독을 믿어서...알아서 해주겠지"(B)라는 일관된 신뢰를 보인다 결국 최대 500세트 정도의 초기 판매를 예상했던 <네 멋> DVD는 <네 멋 30> 카페에서만 공동구매로 8장짜리 1,400세트 주문이 쏟아졌으며 지금도 달마다 최소 100세트씩 판매되고 있다. <네 멋> DVD의 총 판매량은 현재 1만 세트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창작자로서 작가와 감독이 갖는 권한(authorship)에 시시콜콜한 것 까지 간섭하고 도전하는 여타 팬 사이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팬덤의 작동방식을 보여준다.

ii) 무료 상영회 개최

인터뷰에 따르면 DVD 제작이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는 <네 멋 30> 카페가 초기의 동력을 잃고 쇠퇴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 카페 개설1주년 기념 행사로 무료 상영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팬인들은 <네 멋>을 기념하는 <네 멋: 그 여름의 추억 >과 <네 멋: 끝나지 않은 이야기>란 이름의 책들도 내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책 2,000세트를 팔아 거기서 남은 잉여금과 회원들이 각출한 돈으로 무료 상영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 7주간의 무료 상영회 기간 동안 대여할 경우 고가의 경비가 소요되는 음향장비도 한 회원의 노력으로 무난히 확보하게 되는 등, 무료 상영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팬들의 헌신은 놀라울 정도였다. 예를 들면 카페의 몇몇 핵심 멤버들은 정보 장소를 보러 다니다가 선유도공원 관리사무소를 '무턱대고 찾

아가서' 카페 소개, 행사 취지, 이 행사로 인해 공원이 받는 혜택, 공원 시설 이용 모델 제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네 멋> 무료 상영회' 기획서를 제출한 끝에 노천 원형 극장 사용허가를 받아냈다. 한편 저작권 이용 문제에 관해서는 DVD 제작사인 비트윈과의 교섭은 순조롭게 해결되었으나 MBC측과는 끝까지 해결이 안되었는데, 개인이 소유한 DVD를 무료로 상영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무료 상영회를 '대 시민행사, 문화행사'로 열기로 하고 상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상영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리허설을 두 번 하고 스크린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 상영을 개시했다. 매주 150-200명 이상의 시민과 팬들이 참여한 상영회는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네 멋>을 기념하기 위한 팬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시안적으로 돈만 밝히는' MBC에 카페 회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모임이 플러스가 아니라 제곱이 된다는 걸 MBC가 알았으면 좋겠어요...우리 같은 모임이나 마니아 뺨에 이런 게 부화 되는건데, 저작권이나 돈에 연연하는게 우습다고 생각해요" (E).

iii) 책 만들기

정보, 무료 상영회와 더불어 카페 개설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네 멋 30> 회원들은 두 권의 책 -<네 멋대로 해라: 그 여름의 추억>, <네 멋대로 해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을 묶어냈다. -<네 멋대로 해라: 그 여름의 추억>은 국문과 영문대본을 풀어 썼고, <네 멋대로 해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카페에 구성원들이 올린 감상평, 자전적 이야기, 팬픽, 그리고 문화 평론가들의 <네 멋> 리뷰들이 실려있다. 이들은 출판 팀을 만들어서 이 책들을 기획했고 선주문을 통해 예약을 받았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총 2,000세트의 책을 판매했는데, 우리가 이들의 책 출판에 주목한 것은 단순히 판매량 때문이 아니라, 책 출판이란 행위가 이들이 <네 멋>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네 멋대로 해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보면 팬들에 의해 <네 멋>이라는 주텍스트의 부분적 포획과 전유(textual poaching)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과 양상들이 드러난다.

나가기: 팬 활동과 의제적인 접근(ritualistic approach)

최근 몇 년간 시도된 팬연구와 하위문화연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그리고 참여자로서 팬의 미디어 수용(특히 대중음악과 영상문화 부분에서의 수용)과 활용의 방식, 그리고 팬 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질적인 방법론과 '능동적 수용자론'의 틀을 사용해서 천착해왔다. 그 결과 과거에 문화산업에 의해 '관리'나 이익을 담보받기 위한 대상으로 치부되거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연구과정 속에서 '타자'로서 인식되던 팬의 담론적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는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팬들이 매일 매일의 삶의 리듬 속에서 표현하고 만들어 내는 일상성의 문화와 욕망 및 정동의 구조는 문화연구의 지식생산의 영역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김현정·원용진 2002).

돌아보면 영국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하위문화연구와 팬연구는 두 가지 축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첫째, 버밍엄식의 하위문화연구는 미디어 수용자가 상징적인 층위에서 만들어 내는 스타일적인 실천과 의미생산을 통해, 노동계급 출신의 청년들이 주어진 계급과 사회구조에 '저항'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피스크 식의 기호학적인 하위문화와 팬연구는 하위문화가 보여주는 구조화된 계급문화에 대한 저항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향유하는 즐거움, 감수성과 정서적인 동인에 주목했다. 전자의 하위문화연구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이용해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구조에 대한 하위문화의 저항과 투쟁 그리고 협의를 강조했다면, 후자적인 입장은 하위문화적인 자본과 지식의 생성 그리고 정동적인 투자를 통해서 팬들이나 하위문화그룹이 타 집단과 뚜렷이 구별되는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정동적 감수성'(affective sensibility)의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고길철1998; 김창남 1995). 여기서 정동은 특정 팬 그룹이나 문화구성체에 속한 주체들이 세상과 삶을 구분하는 지도(mattering map)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에너지이자, 감각과 감수성 그리고 신체를 결합시키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 멋> 팬들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두 가지 주도적인 하위문화와 팬문화연구의 설명틀에 새로운 단면을 추가하고자 한다. <네 멋>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네 멋>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기억 만들기와 미디어 순례기는 그들이 상업문화를 질료로 삼아 벌이는 일종의 의식(ritual)들이고, 수행 혹은 퍼포먼스이며, 불확실한 삶 속에서 자신들을 위안하고 힘을 실어주는(empowering)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나 즐거움 그리고 감각적인 설

레이을 주지 못하는 활동- 예컨대 대사 외우기, 드라마에 나온 장소 찾기-을 통해서 서로간의 유대와 일종의 공동체성을 만들어나간다. 이러한 팬문화와 활동에 관한 의제적인 접근은 이데올로기나 담론분석을 통해서 하위문화가 지닌 저항성이나 정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동시에 의제적인 접근은 다의적인 스타일의 정치학이나 텍스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의 정치학이 내포하는 지나치게 대중추수주의(populism)적인 입장과 거리를 둔다. 그보다는 텍스트와 참여자 또는 실천가로서 팬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문화적 수행에 초점을 맞춘다.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문화연구자이자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제임스 캐리는 매체의 힘과 그 힘이 영향을 끼치는 수용자에 관한 분석에 치중해 온 주류의 효과 이론에 대항해서, 의미의 생산자이자 전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개입하는 참여자(participant)로서의 공중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는 이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의제적 혹은 시적(poetic) 접근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캐리나 그의 연구를 뒤따르는 일군의 학자들이 공중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미디어 이용을 일종의 제의(ceremony)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의제적인 접근은 미디어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라는 의제적 공간(ritualistic space)이 사물을 바라보는 일종의 틀(frame)을 제공함으로써 공중과 공적으로 공유하는 기억의 구조를 활성화하는 과정을 주목한다.

일상적 표현과 의사소통은 한 사회의 문화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주요한 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징적인 질료들을 사용해서 의미생산에 참여하는 인간의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이 사회 구성원 사이의 대화와 의사소통 망을 통해 연계되는 형식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방식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공유되었을 일상의 대화가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익명의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인접매체를 통해 매개되고, 공유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중계된 과정(mass-mediated process)이라고 명명했을 때, 그 과정에서의 주요 동인은 대중 매체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류의 미디어 이론들은 이러한 대중매체에 의한 의미생산 과정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공중이 가진 표현욕구와 그들이 의미생산에 참여할 때에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중이 다양한 의미생산과 상징과정(symbolic process)으로서 미디어를 이용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언제나 합리적인 토론이나 정보의 공유를 통한 사회담

론의 생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공중은 그들에게 의미 있고, 동시에 억눌린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통로들(흔히 주류언론이나 학자들에 의해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규정되거나 정치적인 함의가 적은 것으로 치부되는)을 찾는다. 이는 미디어의 사용에 관한 통상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닌 보다 인류학적이고, 의제적인(ritualistic) 접근, 자기기술적인 접근(autoethnography), 문화지리학, 그리고 실험적인 글쓰기 등의 방법론적인 열개와 '정서적인 리얼리즘'과, 미디어의 사용과 그리고 놀이(play) 등의 일상문화적인 요인들을 접합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즉 공중의 잠재된 표현욕구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그 동안 흘태해왔던 공중의 삶의 경험을 두껍게 기술할 수 있는(thick description) 능력과 공중이 놀이나 즐거움을 얻는 기제로서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해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네 멋>을 둘러싼 팬들의 활동이 미디어의 수용과 활용에 관한 의제적인 접근을 시론적인 수준에서 엿보게 해주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본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진행중인 연구가 '민속학적인' 접근과 의제적인 접근, 그리고 자기기술적인 접근을 충분히 그리고 맥락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시에 이 연구가 어느 정도 팬들의 입장에서서 그들의 <네 멋>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보고기의 형식을 취하면서, 문화산업, 팬, 그리고 문화연구자 간의 관계와 동력 그리고 정치성에 관한 진지한 이론적인 성찰을 의도적으로 도외시켰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유형의 팬 연구가 담지하는 그저 흥미 있는 팬집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관심을 집중시킨 '하위문화주의'(subculturalism) 내지는 또 다른 의미의 팬활동의 능동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문화적 수정주의'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 수용과정의 참여자이자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욕망을 구조와 타협하면서 만들어가는 팬들의 활동을 전경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연구과정에 일부분이라도 복원함으로써 수행으로서의 팬문화가 지니는 흡인력과 정동의 경제, 그리고 팬들이 직조해내는 의미의 교직들을 세밀하게 연구과정 속으로 초대하려는 작업은 문화연구가 그간 이론적으로는 천착해왔어도, 실행과정에서는 종종 누락시키거나 소홀히 해온 민속학적인 상상력과 시각을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We are in people business!'

참고문헌

- 고길설(1999) 청년문화, 혹은 소수문화론적 연구에 대하여, **문화과학**, 20호, 145-168.
- 김현정·원용진(2002) 팬덤, 진화, 그리고 정체성: 서태지 팬클럽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253-278.
- 박명진 외(1996)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 박은경(2003) **스타덤과 팬덤**, 한울.
- 씨네21(2002) '네 멋대로 해라 드러워도 쿨하게: 마니아 거느린 트렌디 드라마 < 네 멋대로 해라>의 조용한 혁명', 367호, 2002. 8. 27 - 9. 3.
- 우찬제(2002) '전경과 배경의 스타일 혼합: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 읽기', **프로그램/텍스트**, 제7호, 235-251.
- 이동연(2002)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 Carey, James(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Boston: Unwin and Hyman.
- Denzin, Norman and Yvonna S. Lincoln(2002) *The Qualitative Inquiry Reader*, eds., London: Sage.
- Gelder, Ken and Sarah Thornton(1997) **The Subcultures Reader**, eds., London: Routledge.
- Hills, Matt(2002) **Fan Cultures**, London: Routledge.
- Lee, Dong-Hoo(2001) The Cultural Formation of Korean Trendy Drama: Transnational Program Adaptations and Cultural Identi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Special English Edition, 491-510.
- Lewis, Lisa(1992)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ed. London: Routledge.
- Skelton, Tracy and Gill Valentine(eds.)(1998) **Cool Places: Geographies of Youth Cultures**, London:Routledge.